

# 강진군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업인들 '희색'

강진군이 인구 고령화 및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인들의 영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관련 예산 14억원을 확보해 농기계를 지원, 농업인들이 반기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중대형 농기계 66대, 소형농기계 238대, 특수 농기계 2대, 농업용 지게차 7대, 곡물건조기 7대, 농업용 드론 24대, 논공 전용 농기계 6대 등 농기계를 5월 이내에 공급 완료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각각 농기계 구입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해 1대당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지원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

드론 24대, 중형농기계 66대 등 357대 14억원 "농업인 일손 부족 해소 농업 생산성 향상 계기"

른 대체작물로 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논공 재배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논공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2억8,000만원을 확보해 콤팩트 2대, 파종기 4대를 지원했다.

올해 공급 완료한 농업용 드론의 경우 예년과는 다르게 신청 자격을 들녘별 벼 4ha 이상, 밭 1ha 이상 공동방제를 체결한 농업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폭을 대폭 넓혔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곡물 건조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과 같이 지원,

곡물 건조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민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강진군은 농업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달 7일부터 개정된 2톤 미만의 지게차를 농업용 기계로 인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톤 미만의 지게차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건설기계 등록 불필요, 지게차 운전자격을 불필요 등 행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 30대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9,800만원을 확보해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농가의 보상은 물론 환경 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농기계 사고 예방과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부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현장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농촌유학생 모내기 체험 나서

구례군 광의초등학교, 농촌유학생들 모내기 체험

전남 구례군은 지난 5월 21일, 구례군 광의면의 한 마을 논에서 농촌유학생과 지역 학생들이 함께한 모내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의초등학교와 영농조합법인 신농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들은 직접 맨발로 논에 들어가 전통 농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농촌 유학생 20명과 지역 초등학생 16명 등 총 3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또한 농촌 유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구례군수, 광의면장, 구례농협지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자리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농업 체험을 넘어

모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 방법을 익히고, 논의 생태계와 벼의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가을이 되면 이날 심은 모가 황금빛 벼로 자라면, 학생들은 벼베기부터 탈곡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확된 쌀은 아이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라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촌유학이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사업"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보성군, 재해 대비 부곡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 실시

집중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합동 대응 역량 강화

보성군은 지난 20일, 보성을 주봉리에 위치한 부곡저수지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민관 합동 비상 대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저수지 범람 및 제방 붕괴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능력 점검과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보성군을 비롯해 보성소방

서, 보성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재난 상황 접수 및 보고, ▲주민 대피 유도, ▲제방 응급 복구 등 단계별 위기경보(주의-경계-심각-중요)에 따라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원도/장선우 기자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은기 기자

## 완도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실시간 조회, 준공검사 신청까지 온라인에서 가능

완도군은 6월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운영한다.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IPSS)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군청을 방문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시스템이 운영되면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토목 및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및 행정

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군민들에게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방문을 통한 서류 접수 방식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는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우흥래 민원봉사과장은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되고,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도/장선우 기자

## 영암군, 올해 4월말 인구 지난달보다 13명 늘어

입학축하금·전입장려금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반등세 이끌어

영암군의 2025년 4월 말 기준 인구가 전월 대비 13명 증가해 5만984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인구 반등세는 2023년 6월 이후 지속되던 인구 감소세 속에서 약 2년 만의 결과로, 영암군은 인구 구조 개선의 긍정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월은 초·중·고와 대학의 입학이 시작되는 시기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전입·전출이 활발한 시기다.

영암군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학기 초 초·중·고 학생에게는 입학축하금을, 대학생에게는 전입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최근 인구 반등은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내 학령기 학생의 지역 전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영암군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귀농·귀촌 정착 등에서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 세대와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과 안정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주수이전 서비스'로 기업·기관 임직원을 찾아가 전입 추천과 신고를 받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군 인구 반등은 다양한 인구정책의 성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 청년과 귀농·귀촌 세대의 지역 안정 정착을 돕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순천시, 로컬여행브랜드 '실랑계 시즌2'

체류형 마을여행콘텐츠로 지역 활성화 기대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마을 일상과 삶의 가치를 담은 체류형 로컬여행 브랜드 '실랑계 시즌2'를 본격 추진하며 새로운 여행트렌드 제시에 나섰다.

'실랑계'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 운영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정원에서 온전히 누리는 휴식을 컨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이를 마을로 확장해, 지역의 매력과 로컬자원을 여행콘텐츠로 재해석한 '실랑계 시즌2'를 통해 '정원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체류형 여행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실랑계'라는 이름은 우리말 '쉬다'와 독일어로 길다는 뜻의 'Lange'를 조합한 단어로, '조용히, 오래 쉬어가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실랑계 시즌2, 마을호스트 모집' 결과, 총 22곳의 마을숙소가 신청했다. 권역별로는 ▲원도심 10곳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6곳 ▲순천만 권역 6곳으로 분포됐다. 특히 청년층

이 운영하는 숙소가 다수 포함됐으며, 숙소 전반적인 컨디션과 방문자 만족도가 높은 숙소들이 다수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선정된 숙소들은 단순한 숙박 기능을 넘어, 지역 체험, 투어, 음식 등 다양한 로컬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오는 6월부터 숙소 맞춤형 컨설팅과 로컬 파트너사 연계 등을 통해 각 숙소의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7월 중에는 최종 체류형 프로그램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2025 로컬여행주간'을 통해 완성된 숙소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숙박·체험·미식이 결합된 통합 여행상품을 집중 판매할 예정이다.

시는 '실랑계'라는 통합브랜드 아래 참여 숙소들을 집중 홍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투어, 정원위케이션 등과 참여 숙소를 연계해 순천을 대표하는 체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고도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이들  
우어도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말야  
한드서  
잠시  
읽어주고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